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3호

2024 파리올림픽

'올림픽 불똥' 파리 노숙자, 수천명 추방..."사회적 정화" 비판론

최서인 중앙일보 기자

[이층재의 인사이트] 장차관 1년도 안돼 교체 논란... '찐윤' 낙선 이용전 의원, 해마평

장미란, 그리 띄울 때는 언제고

이층재 오마이뉴스 기자

서울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 숲길, 강변 등 동네 곳곳이 무료 체육관... 주민 운동 습관 만든다

김보미 경향신문 기자

국립중앙어린이청소년도서관 6월 사서추천도서 발표

"스포츠 정신이란 뭘까? 올림픽 보기 전 아이와 함께 읽어봐요"

전아름 베이비뉴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체육 경기대회 9개 대회에 대한 인권침해상황 점검

인권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9개 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공민경 KBS 기자

씨사IN, 경기장의 안과밖

까까머리 어디에? 고시엔이 변했다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올림픽 불동' 파리 노숙자, 수천명 추방... "사회적 정화" 비판론

오는 7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노숙인 수천 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쫓겨났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현지 활동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민단체 연합인 '메달의 뒷면'은 이달 보고서를 내고 노숙인 수천 명이 '정화' 작업의 일부로 파리에서 쫓겨났으며 이 가운데는 망명 신청자나 어린이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메달의 뒷면'은 파리 올림픽 개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경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이다.

이 단체는 또 경찰이 성노동자나 마약 중독자도 단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달의 뒷면'은 이어 지난해 4월 이후 파리와 인근 지역의 텐트촌 해체가 강화됐으며, 지난 13개월 동안 1만2500여명이 파리 지역 밖으로 쫓겨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에 7000채의 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당국이 올림픽 때 파리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사회적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양탄자 아래에 비참함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 거리에 수년째 살고 있는 약 3600명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파리는 긴급 거처 제공에 필요한 역할보다 더 많은 일을 이미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림픽을 담당하는 파리 부시장 피에르 라바단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올림픽이 아니라 파리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수라고 말한 바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4월 올림픽 개막 약 100일을 앞두고 파리 외곽 도시 '비트리 쉬르 센'에 방치된 건물에 거주하던 450여명은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의 퇴거 요청을 받고 거처를 옮겼다. CNN방송은 프랑스 정부가 매주 노숙인 50~150명을 파리 외 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장미란, 그리 띄울 때는 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장차관이 임명된지 만 1년이 안 되는데도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핵심 친윤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인사 배경으로 장 차관이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실 요청에도 출마하지 않아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친소 관계에 따른 주먹구구식 인사스타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장 차관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설명은 이번 인사 구상의 자가당착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장미란 차관은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한 인물로, 체육도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장미란이라는 국민 영웅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실시한 인사 중 가장 잘 한 인사"라는 평이 쏟아졌습니다.

장 차관도 이런 기대에 걸맞게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문화와 스포츠정책 등에서 특특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취임 후 체육인 인권보호와 비리 근절 등에 역점을 뒀고, 최근에는 파리올림픽 개최 준비와 지원에 애쓰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체부 내부에서도 '차관 업무가 제대로 자리잡아갈 시점에 바꾸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총선 출마 거부로 정권의 미운털 박혔나

여권 일각에선 장미란 차관 교체와 관련해 지난 총선에서 출마 요구를 거절한 게 빌미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올해 초 이른바 '6개월 차관'들을 대거 총선에 출마시키면서 장 차관에게도 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 차관의 출마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나돌았고, 장 차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후임 차관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에도 장 차관은 총선 출마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고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체육계에서도 "국가적 영웅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장 차관의 총선 출마를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게 문체부 주변의 관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자로 친윤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는 양상입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내 자치행정비서관으로 거론됐는데 최근 친윤계 총선 낙선자에 대한 대통령실 '자리 챙겨주기' 인사 비판이 커지자 보직이 문체부 차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 의원은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체육계 출신 인사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정치권에선 진작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시키면서 파리올림픽을 한 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주무 차관을 교체하는 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친윤 측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장 차관을 억지로 내모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활용할 때는 언제고 이젠 내쫓으려는 얘깁니다. 총선 참패 후에도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숲길, 강변 등 동네 곳곳이 무료 체육관... 주민 운동 습관 만든다

지난 7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경춘선숲길 풀밭에서 다섯 살 아이가 파란색 탁구채를 집어 들었다. 와이어로 고정된 탁구공을 향해 채를 몇 번 휘두르니 공이 '딱' 소리를 내며 맞았다. 오전 기온이 25도 가까이 오른 더운 날씨였지만 "재밌다"며 이번엔 후프를 가지고 갔다. 옆에선 다른 아이들이 주걱에 손잡이가 달린 모양의 플레이스쿠프로 공을 주고 받는 놀이를 했다.

이날 한 시간 가까이 뛰어논 30여명의 아이들은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다. 지난해부터 매주 운동기구를 실은 트럭이 오기 시작한 후로 이곳을 찾는다. 트럭에는 배드민턴 등 익숙한 도구부터 플라잉디스크·플로어볼·티볼·인디아카 등 신기한 교구와 투호·굴렁쇠·윷놀이까지 가지고 놀 것이 많기 때문이다.

3세반 인솔 교사는 "교구를 챙겨 야외로 나오기는 힘든데 여기는 아이들만 데려오면 여러 운동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어 좋다"며 "사용법과 추천 교구를 알려 주는 담당자도 있어서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노원 지역 공원들에는 요일별로 40여가지 용품을 실은 1t 탑차가 머문다. 무료 운동기구 이동 대여소 '운동하러 노원가게'다. 배드민턴을 치러 일부러 왔다는 공릉2동 주민 김분옥씨(82)는 "채도 빌려주고, 여러 사람과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보면 만 1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비율은 62.4% 수준이다. 내년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활 운동은 시민 건강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됐다. 세계보건기구(WTO)는 만 65세 이상에게 하루 40분 정도의 신체 움직임을 권장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신체활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특히 고령층은 걷기와 근력운동을 어디서든 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숲길에서는 청년들이 역기올리기·다리밀기, 자전거 등 기구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 훈련(PT)을 했다. 구청과 협업하는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공원·하천변 마련된 '공원 헬스장'에 찾아 올바른 기구 사용법과 균형 잡힌 자세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숨은 힘을 줄 때 마시고, 팔다리를 풀면서 내쉬어 보세요.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시각 중계주공1단지 배드민턴장에서는 60~70대 주민 10여명이 모여 체조를 시작했다. 전신을 스트레칭한 뒤 가벼운 율동으로 몸을 풀고, 아파트 옆 당현천으로 나가 20여분 둘레길을 걸었다. 마무리는 다시 체조다. 캐스터네츠처럼 붙인 손가락 두 개로 허벅지와 팔다리를 치며 장단을 맞추고, 노래가 나오자 박자를 따라 손뼉을 치며 몸을 흔든다.

3~11월 지역 내 19개 집결지에서 돌아가며 매일 열리는 '힐링걷기'다. 걷기 활동가들이 연구해 만든 체조로 몸을 풀고 1km 정도를 걸은 후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 운동까지 하루 최대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노원구 체육도시과 정혜영 주무관은 "여럿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고령층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 중 대화가 이뤄지는 사회적 정서 운동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구청에서 걷기 자세 분석과 지도법 등 이론·실습 교육을 받은 '걷기 활동가'들은 바르게 걷는 법을 안내한다. 활동가들은 운동 전 몸 상태나 식사 여부, 수면 시간 등을 점검해 어르신들의 컨디션도 확인한다.

석달째 매일 힐링걷기에 참여 중인 최지권씨(71)는 "하루에 적어도 8000보 이상 걸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아픈 곳이 많이 줄었다"며 "혼자선 운동을 시작하기가 힘들었는데 같이 하니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정신이란 뭘까? 올림픽 보기 전 아이와 함께 읽어봐요"

국립중앙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2024년 6월 사서추천도서를 발표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청소년 책을 추천한다. 특히 6월과 12월에는 특정 테마를 설정해 5년 이내 발행된 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올해 6월의 테마는 '스포츠'다.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도서관 측은 설명한다. '각본없는 드라마' 스포츠가 주는 뜨거운 감동과 인생, 책으로 먼저 느껴보자.

「수영이불」 재희 글·그림, 2021년. ©사계절

"그림책 '수영 이불'은 "나는 수영이 좋아요"라는 아이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다. 노란색 수영모를 쓴 주인공은 신나게 물을 저어 수영장에서 바다로, 꿈속으로 나아간다. 자세와 방향을 바꿔가며 물속을 움직이는 아이는 마냥 신나 보인다. 작가는 독자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부감 구도로, 사람들의 수영 모자와 바닷가의 파라솔을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그 중 눈에 띄는 노란 동그라미를 따라 가다 보면 "참방참방" 발을 차고, "보그르르르르" 잠수하는 수영장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수영 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보자. 좋아하는 수영을 마음껏 즐기는 아이의 꿈이 "사락 사락" 시작된다. 장마다 다른 다양한 색감의 파랑과 춤추듯 변하는 물결의 이미지는 한바탕 수영을 하고 막 나온 것 같은 시원함을 선사한다.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청량함과 해방감을 안겨주는 그림책이다." - 추천사서 전지혜

「달팽이 달리기」 이혜인 지음, 2023년. ©킨더랜드

"별 좋은 가을날 도로 옆 수풀에서 달팽이 달리기 시합이 열린다. 똑똑하고 성실한 '달뚝', 먹는 것을 좋아하는 '달통', 질풍처럼 빠르고 힘이 쎈 '달풍', 걱정 많고 소심한 '달심'이 선수로 나선다. 출발신호에 맞춰 출발한 달팽이들은 번개가 내리치고 빗방울이 쏟아져도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달린다. 그들은 오직 앞만 보고 움직일 뿐이다. 그러다 결승선을 앞두고, 뒤따르던 '달심'이 넘어져 뒤집어지고 만다. 함께 달리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느릿느릿, 끈적끈적한 달팽이와 빠르게 달려서 1등을 가리는 달리기 대회의 어울림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경쟁의 결과가 목표만이 아니며 자신만의 속도대로 나아가고, 친구와 함께 노력한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들에게 다가올 책이다." -추천사서 김태연

「올림픽, 어디까지 아니?」 김윤정 글, 이수영 그림, 2022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다가오는 7월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개최되는 달이다. 국제 스포츠 경기는 어떻게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왜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일까? 개최지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 이 책은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법한 올림픽에 대한 질문과 답을 두 어린이의 대화를 통해 쉽게 알려준다. 올림픽의 기원부터 냉전 시기의 올림픽,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두 번의 올림픽 이야기,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시작까지 다룬다. 올림픽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미래 모습까지 담고 있어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개최지와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적 에피소드까지 다루고 있어 올림픽을 테마로 한 세계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아이들과 함께 읽고,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추천사서 손다운

다음 장 계속

「마다니만한 축구 선수는 없어」 프란 핀타데라 글, 라켈 카타리나 그림, 김정하 옮김, 2023년. ©다봄

"'마다니'는 동네 최고의 축구선수다. 토요일마다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는 마다니에겐 맨발로 뛰는 축구선수라는 특별함이 있다. 마다니의 맨발에 공이 떨어지는 순간, 축구장뿐 아니라 온 세계, 음식을 나르던 식당 종업원, 심지어 자동차까지 멈춰 버린다. 광장에서 커다란 함성이 터지면 축구장의 환호성은 온 동네로 퍼져나가 마다니의 집까지 도착한다. 바느질하던 마다니의 엄마도 함께 기뻐한다. 마다니는 얼마 전부터 양털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있다. 아끼고 아낀 덕에 저금통은 무거워졌다. 마다니는 친구들에게 이 돈으로 시내에서 쇼핑할 거고 경기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말한다. 친구들은 마다니가 드디어 새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하게 되며, 지금보다 더 멋진 경기를 하게 되리라 여긴다. 하지만 경기장에 나타난 마다니는 맨발이다. 마다니는 저금통으로 무엇을 쇼핑한 걸까? 경기가 끝나고 동네 사람들은 실력도 마음도 마다니만 한 축구선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마다니의 따뜻하고 속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된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마다니만한 축구선수는 없어'라고 되뇌지 않을까." - 추천사서 김내현

「다짜고짜 배구」 윤주성 글, 김이조 그림, 2023년. ©나무말미

"그저 혼나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 '지완이'.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을 따라간 배구 경기에서 블로킹하는 선수들을 본 후 처음으로 벅차고 짜릿한 감정을 느낀다. 배구에 홀딱 반한 지완이는 학교 배구부를 찾아가고, 키가 작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테스트를 거쳐 당당히 부원이 된다. 그런데 어째 배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실력이 쑥쑥 늘지는 않는다. 에이스 홍하람은 지완이에게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 나가라는 말까지 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짜고짜 시작한 배구, 지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었던 지완이가 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경기 장면들을 읽으며 배구의 규칙과 용어도 함께 익힐 수 있다. 타고난 조건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는 지완이와, 같이 땀을 흘리며 우정을 쌓아가는 배구부 친구들,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란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 추천사서 이새롬

「에이스 김준수」 박현정 글, 리페 그림, 2023년. ©상상의집

"청각 장애로 인해 인공와우를 끼고 야구부에서 활동하는 9번 타자 '구준수'는 블로그에서 만난 '엄지옹'이 전학을 오고 야구부에 입단하게 되자 무척 당황스럽다. 얼떨결에 한 거짓말로 지웅이가 블로그 속 자신을 야구부의 동명이인인 1번 타자 '일준수'로 착각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지웅이는 자신을 반갑게 대하지 않는 일준수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점차 오해가 쌓인다. 한편 야구부의 에이스 일준수는 주변의 지나친 관심과 압박감에 야구가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진로를 위한 중요한 경기 또한 잘 풀리지 않는다. 아이들의 고민과 깊어진 갈등은 풀릴 수 있을까? 이 책은 주인공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야구에 진심인 아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준수가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다." - 추천사서 채송아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글, 2023년. ©다산책방

"한정된 시간 안에서의 성실성과 꾸준함을 통한 성장을 스포츠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야가 또 있을까. '공포를 이겨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다이빙이라는 책 속 인물의 말처럼 성장을 위해 추락을 반복하는 다이빙을 소재로 온 몸을 던지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고교 다이빙 선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승패와 경쟁은 필연적이기에 질투와 부러움, 자랑스러움과 시기가 뒤엉킨 감정들은 훈련과정에서 동반되지만 그 또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고 한 뼘 더 성장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보호 종료 아동 등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좋은 어른들의 등장 또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다이빙의 특성이 사춘기 청소년에 대한 풍성한 은유로,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을 그린 작가의 시선으로도 보여 더욱 공감되는 작품이다." - 추천사서 변유미

「인권을 들어 올린 스포츠 선수들」 최동호 지음, 2024년. ©다른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스포츠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스포츠와 얽히고설킨 문화, 역사, 철학, 정치를 탐색하는 것이 즐겁다는 이 책의 작가 최동호. 그는 스포츠를 통해 도전을 배운 이들이 주는 감동과 인권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장을 펼쳐 보인다. 160cm의 단신 농구 선수, 최초의 여성 마라토너, 나라 잃은 마라토너가 시상대에서 고개 숙인 이유 등 등장인물들의 영향력에 공감하게 하고 그 과정을 재조명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깨알 상식을 소개하며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스포츠 정신과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정신은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 추천사서 심은주

인권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9개 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요 체육 경기대회 9개 대회에 대한 인권침해상황을 점검합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개최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주요 경기대회 9개 대회 25개 종목에 대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은 9개 대회 25개 종목으로, 지난해의 4개 대회 11개 종목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열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4년 U-12 유소년 야구대회, 제42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인권위는 현장점검과 선수·지도자·보호자 등 관련인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경기장·숙소 환경과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스포츠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주요 경기대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열리는지를 점검해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경기대회 모니터링 실시와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그 결과 대회 현장에서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언어·신체 폭력이 현저히 감소했고 부상 등에 대한 신속한 의료조치 등 인권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까까머리 어디에? 고시엔이 변했다 [경기장의 안과 밖]

일본 고교야구는 '고시엔'으로 상징된다. 매년 봄과 여름에 열리는 고교야구전국대회, 그리고 이 대회가 열리는 한신 고시엔 구장의 약칭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 스포츠 저널리스트 로버트 화이팅은 고시엔 대회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머리를 뽀뽀 깎은 고교 선수 수백 명이 출신 지역을 상징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절도 있게 줄지어 입장한다.” 화이팅은 일본 야구에 대한 저서를 여러 권 낸 베스트셀러 작가다. 1977년 펴낸 책 제목은 <국화와 배트>다. 미국인 관점에서 일본 문화를 다룬 루스 베네딕트의 명저 <국화와 칼>을 오마주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본 일본 야구는 매우 낯설게 묘사된다. 고교야구대회의 '까까머리'도 그중 하나다.

일본 야구는 오랫동안 '근성'과 '열혈'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무한 노력주의'를 숭상했다. 한편으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했다. 일본 근현대사와 무관치 않다. 정준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1890년대와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1930년대 일본 야구에서 '근성' '집단'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지적한다. 까까머리는 근성과 집단의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까까머리는 지금 일본 고교야구에서 '소수파'다. 다카라 가오루 일본고등학교야구연맹 회장은 고시엔 구장 개장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인터뷰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했다. “부원 두발을 삭발하는 학교가 26%까지 줄었다.”

다카라 회장은 “예전에는 스파르타식 훈련이나 근성주의가 고교야구에서 주류를 이뤘다. 훈련 중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투수가 과도한 투구 수를 기록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라고 한 뒤, “‘근성 야구’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근성의 자리를 '과학'으로 대신하려 한다. 다카라 회장은 “고교야구를 더 현대적으로 바꾸고 싶다. 조직 운영이나 정보 발신,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야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노력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투구의 회전수나 회전축, 타자의 스윙, 타구의 스피드, 비거리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향상과 부상 방지를 이루고 싶다”라고 했다.

지난해 여름 고시엔 대회 우승팀은 가나가와현 대표 게이오기주쿠(게이오) 고교였다. 야구 특기생이 전무한 학교의 우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다른 화제는 '두발'이었다. 일본 고교야구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공존하고 있다. 고시엔 대회 본선에 출전해 좋은 성과를 거두는 학교 다수는 야구 특기로 입학한 부원들이 주축이다. 대개 이런 학교 야구부원들은 까까머리다. 하지만 8월23일 센다이 이쿠에이 고교와 치른 결승전에서 마지막 아웃을 잡은 뒤 그라운드를 달리는 게이오 선수들의 머리카락은 '찰랑'거렸다. 전형적인 까까머리가 아니었다.

다음 장 계속

머리카락 짧다고 야구 잘하나

게이오 야구부의 모토는 '인조이 베이스볼(야구를 즐겨라)'이다. 이 학교 모리바야시 다카히코 감독은 같은 학교법인 산하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야구부를 지도하고 있다. 그는 고교까지는 야구부 선수로 뛰었지만 대학에선 평범한 법학도였다. 대기업 NTT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고교야구 지도자가 되고 싶어 퇴직했다. 그 뒤 쓰쿠바 대학에서 코치학을 전공하며 지도자가 될 준비를 했다.

모리바야시 감독은 올해 1월 한국 아마추어 야구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연을 열었다. 그는 "일본에서도 '인조이 베이스볼'에 대한 오해가 있다. 웃고 즐기면서 야구를 하자는 게 아니다. 더 높은 레벨의 야구를 즐기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생각하는 '더 높은 레벨의 야구'는 과거의 낡은 야구과 대책점에 있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는 이기는 게 전부라는 '승리 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이가 많다.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선수 혹사 등 나쁜 일이 일어났다. 고교야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기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는 시대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야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고교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야구를 통해 익히는 걸 지향한다."

"선수가 '감독의 말을 따르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야구를 추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야구는 팀이나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선수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야구를 해야 한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를 돕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

"'인조이 베이스볼'은 일본 야구의 낡은 가치관과 싸우고 있다. 집단에 자기를 맞추는 동조 압력, 변화에 소극적인 구태의연함, 지도자와 선수, 선배와 후배 사이 상명하복과 절대복종,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익숙한 것을 따르는 고정관념 등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한국 고교야구에는 두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거의 모든 야구선수가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짧게 깎는다. 클럽야구팀인 애틀리 BC를 지도하는 유정민 감독(54)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고 야구부를 맡았다. 그는 서울고 시절 '두발 자유화'를 실시한 감독이다. 유 감독은 "처음에는 두발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1~2년 정도 지나니 '굳이 짧은 머리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머리로 선수와 일반 학생 사이 차이를 두는 게 불편해졌다"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좋아했다. 유 감독 시절 서울고는 자율을 중시하는 기풍으로 유명했다. 자유로운 두발이 서울고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자부심이 서서히 생겨났다. 물론 반대도 있었다. 유 감독은 "야구계나 동문들로부터 '학생 선수답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머리카락을 짧게 깎는다고 해서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결국 지도자는 선수가 야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다. 억지로 선수를 끌고 가려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팀이 참패한 뒤 한국 야구의 위기에 대한 여러 진단이 나왔다. 그중 일부는 고교야구로 향했다. '겉멋 든 학생 선수'를 비판하거나, '(과거 고교야구에 비해) 열정과 진정성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유정민 감독은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그는 "결국 옛날처럼 '정신력'을 중시하자는 얘기들이었다. 솔직히 화가 났다. 일본 야구가 버리고 있는 낡은 것들을 고수하는 지도자가 아직 많다"라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제주도체육회, APEC 유치 기원 가족과 도심 외곽길 걷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307&ref=A>

제17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오늘 개막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501&ref=A>

2024년 전반기 경정 최강자는?...체육공단이사장배 왕중왕전 19일 개막

<https://news.tf.co.kr/read/sports/2105302.htm>

경기도,올해 신설 체육인 등 총 6개 '기회소득' 연내 지급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35874?ref=naver>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등록된다...민간골프장 조성 러시 전망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9_0002765300&cID=10201&pID=10200

'2024년 응진군협회장기 축구·배구대회' 성료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58100>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첫 삽'...652억 들여 2026년 준공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0054300055?input=1195m>

대한빙상경기연맹, 2024 빙상 국가대표 워크숍 실시

<https://mksports.co.kr/view/2024/414149>

파킨슨병도 꺾지 못한 신념...차별과 싸운 '전설의 복서' 하늘로 [뉴스속오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311453227775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